

정부혁신 보다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글로벌 해양강국!
		배포 일시	2019. 5. 30.(목)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담당자	• 과장 허 룡, 주무관 김태동, 주무관 고지민 • ☎ (051)400-4106, 4385, 4386	
보도일시		2019년 5월 31일(금)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1.(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올 여름, 해수욕장 이안류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올해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서비스 운영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강용석)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6월 1일(토) 부산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개 해수욕장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안류(Rip current, 離岸流)는 해안 가까이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몰려든 바닷물이 바다로 빠르게 돌아나가는 흐름을 말한다. 주로 해변이 탁 트인 바다에서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안류는 해수욕객을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순식간에 휩쓸고 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1년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대천(충남, '14년), 중문(제주, '15년), 경포대(강원, '16년), 송정(부산, '17년), 낙산(강원, '18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매년 개장기간(6~8월) 동안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부산 기장의 임랑 해수욕장*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7개 해수욕장**의 바다 상태와 이안류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또한 해운대, 대천, 중문 해수욕장의 이안류 감시 카메라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 2010년 이안류로 3명 사망, 2018년 이안류 총 19일 발생(추정일 포함)

** 이안류 사고 발생이력, 이안류 발생가능 환경 조건, 해수욕장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선정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수욕장별 이안류 위험지수*와 조석, 파랑정보 및 이안류 발생상황 등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소방본부 및 해양경찰, 현장 구조대원 등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해수면의 높이 변화, 파도의 높이·주기 등을 이용하여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관심<주의<경계<위험’의 4단계로 나눈 해양예보지수

또한 안전요원과 관계기관에 하루 2번(오전 8시 40분, 오후 2시) 정기적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안류 위험지수가 ‘주의’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상시 제공하여 구조요원의 사전 대비와 입욕 통제 등의 조치를 돕는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은 야간개장 운영기간 동안 오후 6~9시의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1시에 이안류 위험지수를 예측하여 알려주고, 이안류 감시 웹·문자 서비스도 폐장시간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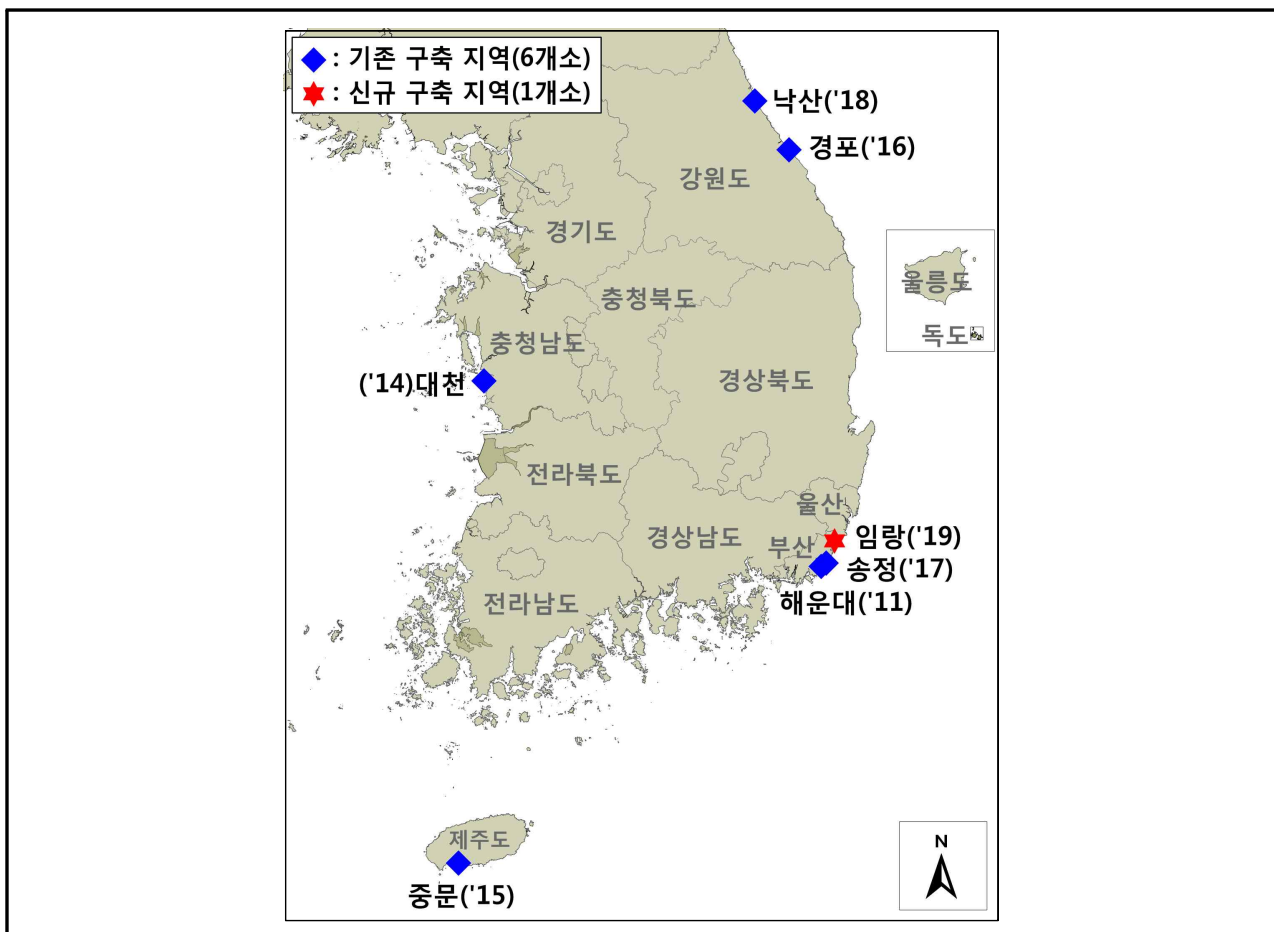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호주, 미국 등에서는 이안류로 인해 매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웹·문자)

□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제공 화면



□ 해수욕장 실시간 이안류 감시 체계 구축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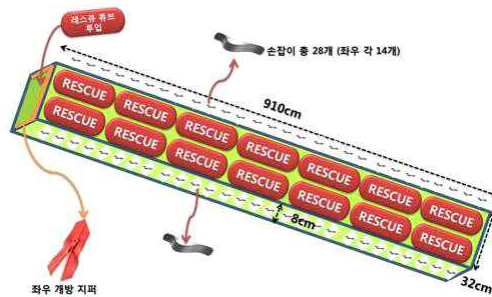
붙임 2 이안류에 대처하는 방법

1. 수영을 못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이안류는 파도가 좁은 폭으로 매우 빠르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튜브 사용 지양).
- 만약 구명조끼가 없이 먼 바다 쪽으로 밀려 나갔다면, 수면에 누운 자세로 떠서 발차기와 팔 휘젓는 것을 자제하며(입새뜨기)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대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이안류 발생빈도가 높은 해상에 안전부력장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이안류 발생 시 이것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안전부력장비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2곳을 분석하여 다수를 한꺼번에 구조할 수 있는 안전부력장비를 제작하여 설치(2018)
- 길이 9 m로, 해수욕객 40명이 매달려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부력을 가졌고, 양쪽에 14개씩 총 28개 손잡이 비치



*출처: 부산해양경찰서

2. 이안류 발생 시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릅니다.

- 해수욕장의 현장 구조 및 안전 요원들이 국립해양조사원 실시간 이안류 위험지수(단계)와 해수욕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입욕 통제를 따릅니다.
- 이안류가 발생하여 해수욕객이 떠밀려 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거나 안전요원에게 알립니다.

3. 이안류에 맞서 헤엄치지 않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이안류는 파도가 좁은 폭으로 매우 빠르게 먼 바다 쪽으로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맞서 헤엄치기가 힘듭니다.
- 튜브와 같이 떠있을 수 있게 하는 물건을 붙잡거나 주변 사람들과 뭉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구조를 기다릴 때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주변 사람들과 동그란 원을 만들어 서로 팔짱을 끼쳐 체온을 유지합니다.
- 혼자서 구조를 기다릴 때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팔로 몸통을 감싸 최대한 웅크려 체온을 유지합니다.

4. 수영이 가능하면 물의 흐름 45도 방향으로 헤엄칩니다.

- 이안류는 해안에 대해 먼 바다 쪽으로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바로 헤엄치기 보다는 물의 흐름 45도 방향으로 헤엄칩니다.

5. 물놀이는 안전요원 근처에서 합니다.

- 이안류 발생 시 빠른 구조를 위해 물놀이는 안전요원 근처에서 합니다.
- 이안류에 휩쓸려 구조를 기다릴 때는 당황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요원의 지시를 침착하게 따릅니다.